

‘광주컨벤션센터’ 건립 본격 추진

중앙 투자심사 통과...2025년 준공 지역 대표 랜드마크 건축물로 건립 AI 적용 스마트 전시장으로 차별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장 광주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시는 “광주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심사 마지막 단계인 행정안전부의 중앙 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2020년 12월 제2전시장 건립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전시장발달협의회 심의를 통과하고 컨벤션 시설 주관 부처인 산업부로부터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 B/C값(비용대비 편익)이 1.32로 높게 나와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고, 이번에 최종 중앙 투자심사까지 통과했다.

특히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돼 있어 향후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마이스(MICE) 산업 육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구 치평동 DJ센터 제1주차장 부지에 총사업

비 1,461억원, 연면적 4만600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 광주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하반기 설계공모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기존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제2전시장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광주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도록 광주다운을 담은 독특한 건축양식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AI 인공지능 대표 도시답게 최첨단 스마트 전시장으로 설계하고 명칭도 공모를 통해 상징적인 이름을 붙일 계획이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광주컨벤션센터가 건립되면 광주시는 명실상부 호남권의 대표적인 컨벤션산업의 요충지로 거듭나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향교 춘기 석전대제 5일 오전 광주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해 옛 성인들의 학덕을 추모하는 춘기(春期) 석전대제가 진행됐다. 석전대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으로, 전국 모든 향교에서 춘기와 추기 2차례 봉행하고 있다.

폐산업시설,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전남도, 여수 덕양역사 등 4개소 120억 들여 재생사업 신규 추진

전남도내 방치된 폐산업시설 4곳에 전남도가 2024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지역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노후 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4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장흥교도소 재생사업 등 4개소는 공사중이다. 올해는 새로 시작하는 곳은 여수 덕양역사, 옛 나주극장, 곡성 침곡역, 곡성 죽곡장터다.

사업을 완료해 운영중인 곳은 담양 담빛예술창고, 나주 나빌레라문화센터,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광양 예술창고 등이다. 이 가운데 2015년 제일 먼저 사업을 완료한 담빛예술창고는 옛 양곡창고(남송창고)를 리모델링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대나무파이프오르간을 설치하고 문예카페로 조성하는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매년 15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담양의 대표 명소가 거듭났다.

지난해부터 사업을 시작한 추진 중인 4개소는 옛 장흥교도소, 옛 나주정미소, 옛 무안고, 담양 봉안정미소로, 총 207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들 노후 시설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 주민이 향유하는 체험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올해 사업을 시작하는 옛 나주극장은 1990년 국

장 영업 중단한 후 방치돼 있다. 나주시가 매입해 ‘다시 나주극장’이라는 테마로 시민영상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곡성군은 폐장한 옛 죽곡장터와 입면장터를 활용해 무인점포, 문화공유공간, 야간경관 등을 설치해 주민과 관광객의 감성을 충전하는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곡성군은 또 1936년 일제 강점기에 산림자원 운송 목적으로 설치했다가 광복 후 폐역이 된 침곡역을 섬진강변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철도노선 폐선 이후 기능을 상실한 옛 철도역사 건물인 덕양역사와 철도신호 취급소를 활용해 방송·예술단체가 참여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가격 폭락 양파 100ha 긴급 시장 격리

도 차원 추가대책 마련 검토

공급 과잉인 양파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면서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조생양파 100ha를 시장에서 긴급 격리하기로 했다. 양파는 지난 1월부터 가락동 도매시장 양파 낙찰가격이 1kg당 500원 이하로 급락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3월 하순부터 햇양파가 나올 예정이어서 가격은 더 떨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는 6일 “지난 5일 무안군 현경면 소재 서남부채소농협을 방문해 양파 저장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농협 조합장 등과 조생양파 긴급 수급안정대책을 논의해 긴급 시장격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소비가 줄어 가격이 낮게 형성되면서 재배농가들이 출하를 미뤘다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지난해 말까지 보관중인 물량을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내면서 가격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전남도의 분석이다.

전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여러 차례 정부와 수급 회의를 갖고 가격안정을 위한 저장 양파 시장격리와 조생 양파 산지폐

기를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저장양파 2만t을 신청 받아 4월까지 시장격리하고, 이후 간양파 또는 가공용 등으로 출하하기로 결정했다. 사업 참여 농협(농가)에는 1kg당 200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각 50%씩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제주도 극조생 양파 44ha도 산지폐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수급대책이 양파가격을 올리는데 턱없이 미흡하고 이행정조가 까다롭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장은 “정부가 발표한 저장양파 2만t 출하 연기와 제주도 조생양파 44ha 산지 폐기는 수급 대책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이번 100ha에 대한 시장 긴급 격리 외 도 차원의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발표한 2022년산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전남은 전국 1만 7521ha 중 30%인 5191ha를 재배하는 전국 최대 주산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김치 명품화사업 본격화

시·세계김치연구소 TF 구성 브랜드·유통 등 4개 과제 모색

광주시가 세계김치연구소와 손잡고 광주김치 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세계김치연구소, 학계와 유통업계 전문가가 참여해 광주 김치산업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기·수시 회의, 인프라 점검 등을 거쳐 6월까지 김치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TF는 일단 산업 경쟁력 강화, 광주 대표 브랜드 개발과 홍보, 국내외 소비처 확대, 산업단지 조성을 4대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김치산업을 11대 대표산업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육성 사업을 펼쳐왔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업체는 여전히 소규모로 영세하고, 광주 김치의 인지도 등도 낮은 실

정이다.

광주시는 2020년부터 3개년에 걸쳐 매일 중인 김치타운 제2차 부지를 김치문화산업단지조성하고, 김치 관련 연구·개발 및 홍보마케팅, 교류·협력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제반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광주에 있는 국내 유일 김치 전문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광주시와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지역김치업체 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컨설팅, 신상품 김치 개발 등 광주김치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노형근 광주시 김치산업팀장은 “세계적으로 한국 김치에 대한 관심 증가는 김치중추도시인 광주 김치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김치산업 육성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동재·영산재·망끝 호텔 모두 팔렸다

전남개발공사, 476억에 매각

전남개발공사가 오동재, 영산재, 해남망끝호텔 등 관광사업장을 최근 476억원을 받고 광주소재 법인 재림이앤씨에 일괄매각했다. 이들 관광사업장은 지난 2015년 행정안전부의 개선 명령에 따라 매각을 추진했지만 8년 동안 매각에 실패하면서 장기간 방치됐었다.

전남개발공사는 6일 “행정안전부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면서 관광사업장의 매각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망끝호텔은 전남도가 지난 2009년 법인 경매로 35억여원에 낙찰받아 리모델

링·비품 구입 등에 약 50억원을 투입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행안부의 개선 명령 이후 매각에 나섰다.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오동재와 영산재 등에도 전남개발공사는 각각 274억원과 11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들 3개 시설에 투자한 원금 이상을 회수했다는 것이 전남개발공사의 입장이다.

이들 호텔들은 영암국제자동차경주대회(한옥호텔 영산재), 여수세계박람회(한옥호텔 오동재) 등 도내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의 숙박시설 지원 및 낙후된 망끝 관광지 활성화(해남망끝호텔)를 위해 각각 건립됐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2년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에너지신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기업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명** 2022 전라남도 일자리 혁신성장 프로젝트 에너지신산업 수요맞춤형 기업지원
- 사업목적**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중심을 위한 기업지원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기업의 성장 및 지속가능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
- 사업공고 및 접수** 2022. 3 ~ 4월 중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별도공고 참조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 <http://gei.re.kr/>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홈페이지 <https://job.jeonnam.go.kr/>
-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 공고 기준일 2022년 신규인력 채용 및 예정 기업 대상
- 1기업 1인 이상 채용 의무 확약서 작성 기업 (사업기간 적용, 신규인력 채용 및 채용 계획 기업 지원)
※ 상기일정 및 지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분야별 수행기간 상이

지원분야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지원 및 제품상용화를 위한 기업지원 (4개분야)

지원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지원 규모	
		수혜 기업	지원 금액(천원)
제품 브랜드 홍보지원	·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국·영문 카탈로그 제작 · 홈페이지, 로고, 디자인 등 · 기존 홈페이지 유지, 보수지원 · 제품광고비(인론매체 및 현수막, 신문광고, 팝업광고 등)	6	30,200
시제품 제작지원	·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 · 유망품목의 시제품관련 금형설계, 제작, 가공 등 개발 비용과 공정개선 향상지원 · 제품 및 생산성 몰드제작, 시제품 제작 시 소요되는 재료비 등 제작 관련 비용지원	10	250,000
제품인증 및 특허지원	· 국내, 외 제품인증 및 특허지원에 필요한 내용	5	40,000
고용촉진 및 유지지원	·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장비임대 (체력환경을 위한 기구, 정수기, 커피머신 등) · 건강검진 및 복지시설 사용료 (리조트 사용 등) ※ 복지지원의 경우 사업공고 이전 기준 1년 이상 고용유지율 인연 적용 (최대 10명)	9	27,000

공통조건 지원대상 (공통부문)
전라남도 내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중견기업 (사업장 소재지 주소가 전라남도도 되어 있는 기업)
-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구입기업
- 22년 사업공고 시점 기준 신규인력 채용 및 채용 예정 (1기업 1분야 1인 이상 확약서)

문의처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1005호 / TEL. 061-331-9325
담당자: 황 우 정 wnsy97@gei.re.kr